‘완주 · 전주 상생발전방안’ 도 · 시 · 군 건의

완주군민협의회-전주시민협의위원회, 12개 분야 105개 합의안… 추가 사업 발굴 위한 논의 지속키로

완주·전주 상생발전 완주군민협의회(공동대표 나유인, 성도경, 이하 군민협의회)와 전주시민협의위원회(위원장 박진상, 이하 시민협의회)는 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30일 체결된 ‘완주군민협의회-전주시민협의회 공동 합의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완주·전주 상생발전방안을 도·시·군(의회포함)에 건의했다.

완주·전주 상생발전 완주군민협의회와 전주시민협의위원회는 2일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군민협의회-전주시민협의회 공동 합의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완주·전주 상생발전방안을 도·시·군(의회포함)에 건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합의서에는 통합을 위한 양 협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하는 내용과 상생발전방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도·시·군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건의와 함께 완주·전주 상생발전방안의 추가 발굴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도·시·군의 적극적인 수용과 추진에 대한 요구와 함께, 수용합의된 105개 방안에 대한 예산 및 중장기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조속히 발표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최종 합의된 105개 상생발전방안에는 △통합 인센티브 완주지역 전액 투자(지역개발사업 분야) △완주군민이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을 12년 이상 유지하고 증액(주민복지 향상 분야) △완주군 의원수 최소 11명 지역구 12년 유지(지방의회 운영 분야) △‘농정국’ 신규 설치 및 농정국장 완주군 출신 보직(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진흥 분야) △통합시청사·시의회청사 완주지역 건립(통합시 명칭·청사 분야) △완주문민 동의 없는 혐오·기피 시설 이전 불가(지역개발사업 분야) 등 통합으로 인한 완주군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완주 지역축제 및 행사 지원 유치 △대형 상업시설(백화점, 쇼핑몰 등) 유치 △만경강(하리일대) 드림랜드(테마파크) 건립 △전주 송천동~삼봉광장(4㎞) 8차선 확장 △전주 장동 유통물류센터 용진읍 확장 이전 △에코시티~삼봉지구 구간 BRT 노선 연장 △완주-전주 택시사업구역 통합, 시내버스 노선 조정 △행정구 4개 설치 행정안전부와 협의 등 통합으로 인한 새로운 지역발전 동력을 얻기 위한 방안들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학군조정, △공정한 공무원 인사기준 마련, △완주지역 북부버스터미널 개설, △완주군 로컬푸드 매장 전주지역 확대, △외곽지역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시설 공급 확대 등 교육, 교통, 농업, 복지, 생활SOC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익 향상을 위한 방안들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양 협의회는 군민협의회가 제안한 사항 중 △읍·면이장 수당 확대 △신설 삼봉중학교를 영재 학교로 육성 등 2개 안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등 별도의 절차가 요구되는 만큼 향후 행정의 수용과정에서 법률적인 부분과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성도경 완주군민협의회 공동대표는 “대광법개정과 하계올림픽 후보도시 선정 등 우리 지역에 다시없을 성장의 기회가 찾아왔다”며, “완주·전주가 한 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침으로서 지역 발전의 큰 틀을 마련해가자”고 밝혔다.

박진상 시민협의회 위원장은 “지난 수개월간 통합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시·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과 완주군민의 마음을 열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법령개정 등 절차와 관련된 내용과 주민요구를 모두 고려해 적극 수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나유인 완주군민협의회 공동대표는 “완주전주 통합은 어느 한쪽이 작아지는 것이 아닌 함께 커지는 과정이다”며 “행정구역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잘 사는 길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은 2일 여름철 저장 강박 가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방역 전문업체 ‘깔끔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저장 강박 가구 안전사고 예방 협력

전주시복지재단, 청소 · 방역 전문업체 ‘깔끔이’와 협약 체결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은 2일 여름철 저장 강박 가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방역 전문업체 ‘깔끔이’(대표 백진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위기·고립 가구 주거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된 협약업체는 총 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협약업체는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물건이 과도하게 쌓인 공간에서 전기 사용 증가와 통풍 불량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저장 강박 가구의 주거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주거개선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관광객 무료 야간해설투어 운영

관광거점도시 전주시가 여름철을 맞아 전주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무료 야간해설투어를 운영한다.

전주시는 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약 3달간 야간해설투어인 ‘한옥마을 노을밤 해설투어’를 정기 및 예약제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주말과 휴일을 포함해 매일 경기전 정문 앞에서 시작되는 무료 야간해설투어는 총 2개 코스로 운영되며, 예약 가능한 시간대는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구체적으로 코스는 △한옥마을의 저녁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한옥마을 코스’와 △풍남문과 전라감영 주변을 담은 ‘전주부성 코스’로 운영되며, 예약시 선택할 수 있다.

이번 한옥마을 노을밤 해설투어 예약은 최소 3인 이상이 투어 3일 전까지 한옥마을 관광안내소(063-282-1330) 또는 관광정책과(063-281-2665)로 전화 예약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한 관광객들도 당일 참여할 수 있는 정기 야간해설투어도 함께 진행한다.

정기 투어의 경우 별도 예약 없이 투어 시작 5분 전까지 경기전 정문 앞에 모이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한 · 중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구현 미래전략 모색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 · 중 AX 협력 컨퍼런스 개최

한국과 중국의 AI(인공지능)·스마트시티 전문가들이 전주에 모여 인공지능 기반의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미래전략을 함께 모색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전)은 1일 진흥원 대강당에서 전주시 관계자와 중국 하얼빈정보공정대학, 전북지역 산·학·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AX 퓨처 포럼’의 일환으로 ‘한·중 AX 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주관하고, 전주시와 (사)한국소프트웨어기술인협회가 후원한 이번 컨퍼런스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25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된 전주시의 ‘AI 스마트도시 모델’과 연계해 AI기반 도시기술의 변화와 지속가능한 비전 및 전략을 공유하고자 기획됐다.

‘AI 융합 스마트시티 미래발전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날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기술적·사회적·윤리적 대응 방안은 물론, ESG기반 도시 전략과 데이터 주권, 시민참여, 도시 탄력성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주제 발표 시간에는 하얼빈정보공정대학의 고로(Gao Lu) 부총장과 강세양(JiangShiYang) 연구원이 각각 ‘중국의 스마트시티 산업 발전 전략’과 ‘하얼빈 AI 융합 스마트시티의 미래전망’을 주제로 발표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권희성 기자

익명의 기부자, 인후3동에 13번째 이어진 성금 기부

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국승기)에 지난 1일, 익명의 기부자가 저소득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성금 35만원을 기부하며 또다시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번이 벌써 13번째 이어진 기부로, ‘처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라는 문구가 적힌 편지를 남기며 만 원권 35장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부자는 지난해 6월부터 매월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며 지금까지 전달한 누적 기부 금액은 400만 원을 넘어섰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지방의회 체험교실 학생 수송버스 제공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2일 학생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운영 중인 ‘지방의회 체험교실’에 참여하는 학교에 학생 수송 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학교 측이 지방의회 체험교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의회와 학교를 왕복하는 버스를 제공해 학생들의 이동을 도울 계획이다.

시의회는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교실을 올해부터 고등학생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3분자유발언과 지역구 의원과의 만남 등을 통한 현장 교육도 이뤄진다.

시의회는 앞으로 지방의회 체험교실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학생들이 도출한 제안을 실제 정치에 활용하는 등 체험교실을 더욱 역동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